

21세기 글로벌 결핵 퇴치 올림픽이 있다면, 단연코 이곳을 두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의 상징 남산타워가 올려다보이고, 서울역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위치, 용산 전자상가를 끼고 있는 이곳은 바로 “서울복십자의원”. 이곳을 거쳐 간 환자 수만 하루 40명 기준 189,800여 명. 물론 2000년 이후 결과다. 90년대 당시만 해도 하루 80~90명이 내원할 정도였다. 이 모두가 국가 보건이 상향된 결과이니 안타깝게 여길 필요도 없다. 2013년이 저물어가는 12월을 맞아 편집실은 대한결핵협회가 전국 주요 도시 4곳에 운영 중인 복십자의원 가운데 서울지부 복십자의원을 찾아가 현황을 살펴보고, 2014년 국민 건강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민 보건의 근간을 이루는 그 날까지 달린다!

서울지부 복십자의원

서울지부 복십자의원은 전문적인 결핵 치료와 임상연구를 위하여 협회가 운영하는 결핵 및 호흡기치료 전문 의료기관이다. 특히 초 치료 실패 환자들을 위한 약제 내성검사, 화학검사 등 정밀검사를 시행한 후 적절한 항결핵 치료를 한다. 내원하는 환자들은 주로 감기나 천식, 결막염 등의 치료를 원하는 환자와 결핵 치료를 원하는 환자로 나뉘는 편이다.

특히 국내 유일 외국인인을 대상으로 결핵 예방적 진료 및 치료를 담당하는 까닭에 환자 가운데 1/2 이상이 외국인에 속한다.

결핵 치료 전문 의료기관인 만큼 채(객)담실을 출입문에서 가장

환기가 잘 되는 곳에 1평 남짓 마련해두고, 진료실 바로 곁에는 X선 촬영실과 병리검사실, 약국을 뒀다. 이 모두가 환자들의 빠른 진료와 거동이 불편한 유·소아와 장년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다년간 이곳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 의료진 수는 김은배(53) 원장을 비롯해 모두 5명. 간호파트에 서미숙 선생님, 정수진 선생님, 임상병리사에 신익환 선생님, 방사선과에 김혜숙 선생님이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찰나 조차 허용치 않는 질서정연함으로 환자를 원스톱(One-Stop)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 중심에서 진두지



휘하는 김은배 원장을 만나 보았다.

대전복합자의원과 대구복합자의원을 거쳐 1999년에 이곳에 배정 받게 된 김 원장은 벌써 14년째 이곳에서 근무 중인 베테랑 가운데에서도 베테랑에 속했다.

병원을 주로 내원하는 환자들은 어떠한 경우인지에 대해 김 원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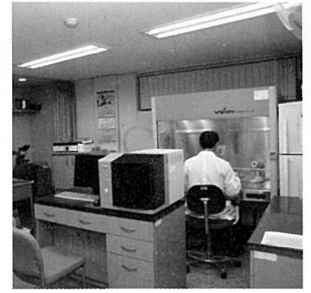
“보통 질병이 의심될 경우 환자들 대부분은 큰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가는 편입니다. 그곳에서 결핵으로 진단될 경우 공식적인 치료제를 처방받게 되지요. 하지만 개인에 따라 처방된 것이 아니므로 치료제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흔한 증상으로는 간염, 위장장애, 구토, 설사 등과 피부 부작용인 두드러기를 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곳을 몰랐던 환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경로를 통해 이동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제에 대한 부작용으로 찾은 환자들의 치료는 얼마나 걸릴까?

“처음 약제 부작용을 겪었다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처방한 약을 스스로 줄이거나 해서 듣지 않게 된 경우라면 9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러다 다제내성으로 간 경우 2년까지도 걸리게 됩니다.” 그만큼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처음 발병한 경우, 결핵 전문 치료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히들 큰 병원을 먼저 찾게 되는데 첫 치료에서 완치되면 모를까 잘못된 복용 습관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이곳과 달리 개인에 따른 처방이 아닌 까닭에 일반적인 처방에서 오는 부작용으로 더욱 힘든 치료 과정이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그렇기에 김 원장은 복합자의원의 차별성이야말로 국민 건강의 근간을 흔드는 결핵균을 퇴치하는 바로미터라며 “우리 병원은 결핵 분야 다년간의 전문 의료진들이 윈스톱 진료뿐만 아니라 개인에 따른 차별 처방으로 환자를 세세히 살핍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장의 진료실 안에는 환자 진료 차트는 물론 매일같이 건강 관련 소식을 직접 스크랩해 쌓아둔 서류들로 가득했다. 여느



병원과 달리 분홍색 가운을 입은 그의 등 뒤로는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기온에도 열려있는 창문이 유독 인상적이었다.

문득 오랫동안 환자들을 돌봐오는 가운데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궁금해졌다. 이에 김 원장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분명 저도 감염됐었을 겁니다. 하지만 발병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묻자 김 원장은 “찾은 환기입니다. 결핵균은 공기 중을 통해 오염되는 편인데, 환기야말로 균과 멀어질 수 있는 가장 쉽고 효과 빠른 방법입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결핵 환자분을 가족으로 둔 경우라면, 집안의 공기를 자주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염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그밖에 과로를 피하고 평소 규칙적인 생활을 할 것과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결핵은 물론 다른 감염성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2014년엔 국민은 물론 정부와 지자체의 결핵 퇴치에 대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는 김 원장은 “경각심이야말로 하루속히 우리나라가 결핵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드는 길”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터뷰를 마치며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만난 환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다.

광명시에서 찾아온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환우는 결핵이 의심되자 보건소를 찾았고, 처방 약의 부작용으로 가슴 쪽에 두드러기 같은 증상을 보였다. 결국, 보건소의 소개로 지난 7월에 이곳을 찾게 된 그는 이제 차츰 부작용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안도감과 완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2014년엔 꼭 완치할 것이라고 다짐 어린 시선을 보내는 그는 다른 많은 환우도 자신처럼 헤매지 않고 이곳으로 곧장 찾아와 완치의 꿈을 함께 키우면 좋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병원 측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병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때다. 2014 갑오년엔 김 원장의 기대에 부응해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국민 보건의 근간을 이루길 기대해본다. †